

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공동 보도자료〉

배포일 : 2024.12.12.(목)

배포 즉시 보도 가능

02-784-1534

경찰, 군 부대의 국회 출입은 허용하면서 국회의원 출입은 막았다!

- 포고령 선포 이후 국회 전면 통제했지만 00시 34분 군 부대의 국회 진입은 허용
-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된 후 01시 46분에 군 부대 진입 허용해
-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 “경찰의 내란 혐의 구체적으로 드러나,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”

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출입을 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

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, 3일 23시 37분경 서울경찰청은 영등포서 경비과, 국회경비대 등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전면 출입 통제 명령을 하달했다.

<3일 23:37:41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네.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. 아울러 재차 차벽 설치하세요.>

4일 00시 34분경 서울경찰청은 재차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하며 군 병력의 경우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.

<4일 00:34:52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서울청 경비상황실에서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금일 근무에 지원된 영등포서 관내 근무에 지원된 경력들에게 일방지시합니다.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. 다만, 군 병력 군 병력 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조치하세요.>

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, 군 병력에

대한 출입을 허용한 것이다. 당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의 비상소집에 따라 국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.

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30분이 지난 후에도 군 부대의 진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.

4일 01시 41분경 수방사 병력이 철수했다가 다시 진입하겠다고 요청했고 경찰은 01시 46분 5분만에 이를 허가했다.

<4일 01:41:52, 국회경비부대장, 수방사 병력이 나갔다가 다시 국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데, 다시 들어가는거는 허가를 해줘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 경비안전계장.>

(중략)

<4일 01:46:31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알겠습니다.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. 영등포서 경비과장 잠깐 전 지시사항 수신했는지.>

당시 국회 3문 쪽에선 A 국회의원을 포함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.

이 밖에도 경찰은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모든 출입문에 버스 차벽 설치를 지시했고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도 행정 차량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통제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.

<3일 22::50:38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27, 34, 45, 71, 87기동대장. 아울러 현시간 각 문에 경력 배치뿐만 아니라 문앞에는 경찰버스로 차벽 설치하세요.>

<3일 22::53:02, 서울청 경비안전계장, 네. 지시하고 있는 5개 기동대 경찰버스로 각 출입문 차벽 설치를 지시했습니다. 다만 차벽만으로 부족한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영등포경찰서 행정차량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서 좁은 공간이라 도 비지 않도록 조치하세요.>

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“국회의장도 담을 넘어 영내로 들어

을 때 군 병력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”
며 “이는 명백한 내란 공조 행위다. 단순히 수사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
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할 것이다” 라고 강조했다.